

2020 대림절 묵상집

기다림

Advent Devotional

GENEVA PRESS

편지집자 노트

대림절은 주님의 초림을 축하하고 세상에 그 복된 소식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또한 대림절은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며 우리 삶을 점검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올 해도 어김없이 대림절이 찾아 왔습니다. 그런데 올 해 대림절의 분위기는 예년과 같지 않습니다. 예년 같으면 크고 작은 모임들로 인해 우리 마음이 많이 들떠 있을텐데, 올 해는 모임들이 많이 줄었고 사회적 분위기도 한창 들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위기는 또한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온 인류에 위기를 가져다 주었지만, 또한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익숙하던 것을 멈추고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시도해 보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더 이상 예전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된다고 경고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영적 상태에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님이 없어도, 혹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아도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 지상낙원을 이룰 수 있을 것 처럼 교만해진 우리 인류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만 속수무책인 우리의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 모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질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킬 백신이 속히 개발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보다 더 간절히 기다려야 할 것은 모든 어둠과 질병과 아픔의 근원인 죄가 종식되는 것이 아닐까요?

죄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만 완전히 종식되어질 것입니다. 죄로 물든 이 땅에 생존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면서 그 날, 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올 대림절에 주님의 재림이 정말 기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켄터키 루이빌에서
박선규 목사



2020 대림절 묵상집: 기다림



새 결심, 새 결단

대림절 첫째 주

이종형 목사님

이사야 64:1-12

“원하건데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에 하옵소서”(1-2절).

주여,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기도를 드리고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징계를 받고 있는 선민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한 그들을 괴롭히는 이방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63:7-64:7참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간구하는 이유는 이방 나라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 앞에서 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신 후 광야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사건을 언급합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것과 같이 지금 다시 강림해 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임하여 구원을 베푸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딜레마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그들이 구원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자가 되었고 그들의 의는 더러운 옷같이 되었습니다. 그

래서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숨기셨고, 그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멸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백성이요 주는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어 세상의 유일한 주가 되심을 나타내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2020년 대림절 첫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현재 영적 실체는 어떠합니까? 십자가의 길을 떠나 세상 풍조와 쾌락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왜 세상의 조롱을 받고 있으며, 주님께서는 왜 교회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까요? 돌아오라고 외치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이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과거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찾아오시어 구원하신 것과 같이 다시 강림하시어 주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묵상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위해 간구하는 자입니까? 오늘의 말씀에 반응하여 무엇을 실천해 보겠습니까?